

번역학 연구의 발달과 당면 과제 :

국내외학술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정 호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Cheong, Ho-Jeong (2013). Research trends in and challenges facing translation studies: A meta-analysis of research efforts made in and out of Korea since 1999.

This paper reports on the evolution and changes made in research trends in the discipline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ranslation studies (TS), which has emerg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academic fields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s a discipline built upon “interdisciplinary benefits”, resorting to the accumulated achievements of adjacent disciplines.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of benefits”, TS needs to meet new challenges if to achieve another “takeoff”. Two specific challenges will be discussed in depth: a need to standardize terms in T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discipline-internal communication and a need for Korean scholars to make active contributions to the further growth of TS internationally. To this end, different journals, published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will be compared in order to identify dominant research trends. Results of this meta-analysis will be put into perspective so as to broaden the academia’s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research areas/topics and methodology.

Keywords: translation studies, meta-analysis, research methodology, terms and terminology, standardization

■ 차례

I. 들어가는 말	1.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II. 학문내적 소통 효율 제고를 위한 용어 표준화 필요성	2. 엄격한 연구방법론의 적용 및 용어 사용
1. 현황과 문제점	3. 논문 완결성·완성도에 대한 기준 강화
2.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과 효용	4. 선행연구의 철저한 검토
3. 국내 번역학계의 용어 혼용 실태	5.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 채택
4. 번역학 외적 용어 통일	6. 고유한 번역전통을 반영하는 연구의 확대
III. 국내외 전문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7. 접근법 및 관점 다양화 노력
1. 분석 대상	V. 결론: 번역학 연구와 국내 전문학술지의 향후 방향
2. 구체분석에 사용된 분류 체계	
3. 분석 결과	
IV. 논의 및 제언	

I. 들어가는 말

홈즈(James Holmes)가 번역학을 처음 정의하면서 그 하위 분야 구성과 위계를 정리한 지도를 제시한 이래, 스넬-혼비(Snell-Hornby)는 1988년 “번역학을 독립학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계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1988)”고 학계 분위기를 전했고, 1995년에 이르러는 번역학이 “독립학문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음(1995)”을 선언한다. 2년 뒤 베이커(Mona Baker)는 번역학이 “1990년대의 대표적 학문분야일수 있음”에 주목한다(1998).

이같은 번역학의 성장을 반영하여 현재 번역학 분야 국제저명학술지(A&HCI급)로 『META: Translators' Journal』(네덜란드 존 벤자민스(John Benjamins) 출판사) 발행, 이하 『META』, 『The Translator』(영국 생 제롬(St. Jerome) 출판사 발행), 『TARGET』(존 벤자민스 출판사 발행)의 3개 지가 연구 성과 공유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

Babel』(존 벤자민스 출판사 발행), 『TTR』(캐나다 번역협회(Canadian Association for Translation Studies) 발행), 『FORUM: International Journal for Interpretation & Translation』(파리 제3대학 및 한국통역번역학회 공동 발행), 『Translation Studies Abstract』(생 제롬 출판사 발행) 등도 연구자들에게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번역학의 양적 성장과 관련하여 먼데이(Munday)는 전문화된 통번역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영국의 경우 2007/2008학년도 기준으로 20개 이상 기관에서 총 135개의 번역 관련 석사과정을 개설하였고(먼데이, 2000 [2008]), 전 세계적으로는 60여 개국에 통번역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이 최소 250개교에서 개설되었다(케미네이드와 핼(Caminade & Pym), 1995, 먼데이, 2008에서 인용).

세계적으로 통번역 관련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도 증가 추세여서, 프랑스 파리 제3대학(ESIT), 스위스 제네바 대학 통번역대학원(ETI),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및 몬트리올 대학교 등이 본격적인 통역 번역학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통번역 및 통번역학의 주요 보완·지원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문용어학(terminology) 박사과정 프로그램도 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통번역관련 박사학위 과정 개설 대학 현황(해외)

국가	대학 명	박사과정 개설 프로그램
프랑스	École supérieure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 (ESIT) - Paris 3 Sorbonne Nouvelle	통번역학 및 통번역과학
스위스	Ecole de traduction et d'interprétation (ETI) - Université de Genève	통역학, 번역학, 다언어 정보 처리
캐나다	University of Ottawa	번역학(번역이론, 번역교육, 컴퓨터 보조번역 등)

국가	대학 명	박사과정 개설 프로그램
캐나다	Université Montréal	번역학(번역학 및 전문용어학)
영국	University of Leeds	통번역학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번역학(연극번역, 문학 및 아동번역 등)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번역 및 문화학
독일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번역학, 언어학, 문화연구
독일	Colog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Fachhochschule Köln)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회의통역, 전문번역, 전문용어학언어공학
스페인	Universitat Pompeu Fabra	번역학 및 언어학(사전편찬학, 전문용어학, 전문번역 등)
스페인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번역학 및 이문화연구
스페인	Universidad de Granada	통번역학(통역학, 번역학, 전문용어학)
미국	Birm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동교 석사 재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개설
미국	Kent State University	번역학(일반번역학 및 언어정보학 세부전공)
벨기에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언어학(전문용어학 포함), 어문학(번역학)
벨기에	Institut Supérieur de Traducteurs et Interprètes	번역학
덴마크	Aarhus University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지식커뮤니케이션, 통번역, 사전편찬학 등)
스웨덴	Stockholm University	통번역학
아일랜드	Queen's University Belfast	통역학, 번역학
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Vienna (Universität Wien)	현재는 운영하지 않음
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Graz (Karl-Franzens-Universität Graz)	통번역학
오스트레일리아	University of McQuery	언어학(번역학 포함)
포르투갈	Universidade de Porto	번역학 및 언어학
핀란드	University of Vaasa (Vaasan yliopisto)	응용언어학 (커뮤니케이션, 언어습득, 번역학)
핀란드	University of Turku	통번역학(영발 등 언어별 학과 구분 운영)
헝가리	Eötvös Loránd University	언어학(번역학 포함)

국내에서는 200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이 국내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석사 과정 전문 통번역교육은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시초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동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선문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학원 명칭에 ‘통번역’이란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번역TESOL 대학원까지 합치면 총 11개가 운영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국내 통역번역학 박사과정은 2000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전문학술단체 활동은 이미 1998년에 태동하였다. 한국통역번역학회(구(舊)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가 1998년 8월 국내 최초의 번역학 전문학회로 발족하여 이 분야 연구노력을 선도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부터는 국내 최초의 번역학 전문학술지 『국제회의통역과 번역』(현(現) 『통역과 번역』)을 출간해오고 있다. 이 학술지는 2003년 한국연구재단 최초의 통번역학 분야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이 분야 최초의 등재지로 부상하였다. 현재 국내 통번역학계에는 국제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등이 계속 출간되면서, 2013년 현재 총 5종의 국내외 전문학술지가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다.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번역학계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적 공유가 아직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 두 번째로 국내 번역학계의 학문내적 연구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용어 통일 및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김정우, 2006; 이연향, 2005; 정호정, 2007).

전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우리 번역학계가 국제적으로 항상 주변적 위치만을 차지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06년, 당시 번역학계 유일의 국제저명전문학술지(A&HCI급)이었던 『META: Translators' Journal』의 한국 번역학 특집호 발간¹⁾은 한국번역학계가 세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이후 유사한 사례를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도 논문/단행본의 해외 게재/출판이 희망하는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번역학계 내부적으로 전문용어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번역학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스넬-혼비, 베이커 등이 보고한 것처럼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은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학문분야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의 번역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번역학이 인접학문분야 성과를 차용하는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에 기대어 발전해왔다면(스넬-혼비, 1987 [1995]; 쿠스마울(Kussmaul), 1995), 앞으로의 번역학은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번역학만의 고유한 연구성과를 일궈내고 축적하는 한편, 이 성과가 다시 인접학문분야에 소개되어 이들 인접학문분야의 발전을 촉발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투리(2009)의 지적처럼 번역학이 학제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비해 정작 번역학의 연구 성과들은 번역학을 넘어선 다른 학문분야에서 논의되거나 인용되는 일이 거의 없는 현실이야말로 오늘날 번역학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정호정(2007, 2010)은 번역학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이런 문제를 해

1) 『Theories and Practice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Korea』란 부제로 발간된 『META』 제51권 2호는 『META』의 위촉으로 한국통역번역학회(당시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가 전체 기획을 담당하였다.

결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번역학이 번역학 용어를 학문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접학문분야와 호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립하고 표준화할 때 번역학의 연구성과가 다시 인접학문분야의 연구를 자극하는 ‘쌍방향 호혜 모델’(reciprocity of benefits)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국내 최초 번역학전문학회인 한국통역번역학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씌어졌다. 본고의 목적은 오늘날 국내 번역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